



4면

전주한지 '정부 표창장' 공급 방안 모색

전주매일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음 1월 28일) 제27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내 소부장 기업 자금 지원 '실탄 준비'

비나텍·L&S벤처투자 등 총 300억원 펀드 조성도, 출자약정금액의 30% 지방기업에 투자키로

전북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실탄이 준비됐다. 도내 대표적 소부장 강소기업인 (주)비나텍과 L&S벤처투자가 힘을 모으고, 전북도가 공모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며, 3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됐다. 전북도는 10일 도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모태펀드 소부장 분야 출자사업에 참여해 공모·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모태펀드는 정부기관의 예산 등을 활용해 결성한 펀드로, 시장주요를 반영해 회수재원을 재순환시켜 안정적 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도는 도내 소부장 기업 중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지역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소부장 모태펀드는 소부장 분야 기업투자에 감점이 있는 L&S벤처투자와 함께 총 300억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의 출자약정금액의 30%는 지방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북도는 L&S벤처투자, 비나텍과 함께 한국모태펀드 출자 공모 접수단계부터 협의를 해왔으며, 올해부터 4년간 소부장 모태펀드가 180억, 전북도와 비나텍이 각 50억, L&S벤처투자가 20억을 출자, 총 300억을 조성해 도내 기업에 대해 90억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소부장 2.0

전략' 발표에 따라 전북도 산업별 소부장 분야 TF를 구성해 대응해 왔으며, 소부장 분야 펀드 지원으로 지역 내 유망기술 품목을 가진 소부장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도와 펀드에 같이 참여하는 (주)비나텍은 국가대표 소부장 강소기업으로서 자사에서 생산하는 슈퍼커패시터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에 도내 소부장 기업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전북도 소부장 분야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소부장 분야 펀드 조성으로 지역 소부장 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이 가능해졌고, 도내 혁신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전북도 소부장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1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식에 송하진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오태균 하나펀드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최고 전문사무관리회사, 혁신도시 이전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사무소 개소...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탄력'

도·국민연금, 신한·하나銀 사무소 개설도 추진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조성 송하진 지사 "매우 의미있는 일"·김용진 이사장 "사무관리 업무 강화 기대"

국내의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개 금융기관에 이어 하나펀드서비스(주) 전주센터가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하나펀드서비스의 전주센터 개소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는 첫 번째 이전 사례이자 관련 업계 규모 1위 업체의 이전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1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오태균 대표이사, 이용원 감사, 김광선 상무, 김승범 상무 등 핵심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주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하나펀드서비스의 전북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마친 청년은 지원금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15일경에 지급받게 되며, 지원금은 사행성(도박, 복권 등)이 있거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취급금, 주류 등)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내위탁자산(주식 및 채권, 대체자산 등) 약 137조원에 대한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산출과 국내 위탁운용사에 대한 운용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사무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이와 관련 하나펀드서비스는 전주 시 덕진구 만성동에 전주센터를 열고 전담인력 18명을 상주시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글로벌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6곳이 안착한 데 이어 위탁자산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무관리 영역의 골지의 회사인 하나펀드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전북으로 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펀드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로 1999년부터 일반사무관리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일반사무관리 업무 수탁자산 규모가 482조에 달하는 업계 1위의 회사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국내채권·대체자산 수탁은행으로 각각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무소 개설도 연내에 추진해 금융기관 집적화와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금융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실제 국내의 우수한 금융기관들의 이전으로 이어지는 등 전북 금융생태계 모형을 갖춰주고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2023년까지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하여 금융도시로서 위상과 면모를 갖추도록 차질없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전주에 국민연금 담당인력을 대폭 배치한 하나펀드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위탁 운용 자산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승범 의심되면 '1339'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 돕기...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시작

입업·연구기업까지 확대 올해 지원대상 1000명 규모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

전북도가 취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30만원씩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댄 전북형 청년수당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지원대상을 기존 500명 규모에서 두배인

1,000명으로 규모로 확대했다.

또, 대상분야를 기존의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입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모집공고를 통해 2월 2일부터 20일간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1,54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북 거주기간, 소득수준 항목에 대한 1차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2차 심사로는 활동기간, 자기소개서, 지원금 활용계획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한 뒤, 기 참여자, 기관별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지난 10일 최종 1,000명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자 확인은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d.j.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선발된 1,000명 중 59.8%인 중소기업(제조업) 재직자가 가장 많았고, 3년 미만의 취업 청년이 50.5%이었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65%이하의 청년이 43%를 차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소득보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형 청년수당 선발자는 10~15일 중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d.j.go.kr)에 접속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하며, 카드발급 및 사용방법, 지원금 사용항목,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을 안내받고 상호의무협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협약을 마친 청년은 지원금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15일경에 지급받게 되며, 지원금은 사행성(도박, 복권 등)이 있거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취급금, 주류 등)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